

제공일자	2014. 6. 11(수)	담당자	전용식 부실장(동향분석실)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051)	연락처	3775-9035
			총2매

제목 : 2014년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당초 5.0%에서 3.7%로 하향 조정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세계교역량 확대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3년에 비해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계정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0.2%p~0.3%p를 제외할 경우 3.6% 경제성장률은 보험연구원의 당초(2013년 10월 전망) 전망치(3.3%)와 동일한 수준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으로 인한 투자 부진과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존함.

2014년 소비자물가는 미약한 내수 회복세, 경상수지 확대에 의한 원화 강세와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0.5%p 낮은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당초 연평균 3.2%를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로 2.9%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일본과 유로지역의 양적완화 실시 전망으로 당초 예상보다 5원 낮은 1,035원(2014년 연평균)이 될 것으로 예측됨.

예상보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당초 전망보다 1.3%p 낮은 3.7% 증가에 그칠 것

으로 보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둔화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 당초 4.4%보다 2.0%p 낮은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FY2013 저축성보험은 17.2% 감소하였고 보장성보험은 4.3% 성장하였는데, 2014년에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저축성보험 수요 둔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신상품 출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14년 원수보험료가 6.1%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 5.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여 **7.1%**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연금부문은 개인연금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60%→70%)으로 퇴직연금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당초 성장률 5.1%보다 **0.9%p** 높은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일반손해보험은 설비투자,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율 전망을 6.2%에서 **5.1%**로 하향 조정함. 자동차보험은 제한적 수준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과 요율 인상으로 인해 당초 2.3% 전망에서 **2.2%**로 하향 조정함.

첨부 : CEO Report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끝.